한-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행정의 변화

김낙회 관세청장

지난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-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-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.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, 유럽연합(EU),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성사시킨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.



對중국 교역량은 對중국 수입비중 16.1%, 수출비중 26.1%, 전체 교역비중은 21.3%로서, 미국과 EU를 합친 교역비중 19.4% 보다 많아, 한-중 FTA의 낮은 상품



자유화율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는 기 체결된 어떤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.

한 중 FTA 체결은 무역 자유화에 따른 교역량 증가와 전자상거래에 의한 개인 직접구매 급증, 유턴기업 및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한 국내일자리 창출 등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경제 활력을 여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.

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와 對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 노력, FTA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그리고 기술우위 제품의 시장선점 노력 등 기업과 정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.

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-중 FTA의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고 조기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도에 서울·부산·인천세관에 「수출입 기업지원센터」를 설치하고, 중국 수출기업에 특화된 FTA 활용 서비스제공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-중 FTA 특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.

특히,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우수 농수축산물 및 그 기공품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FTA원산지 증명절차 완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.



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28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과 「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 ¹⁾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.

또한,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극대화하고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명세서²¹작성 실례를 담은 「산업별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(농림축산물/화학/섬유・의류/자동차・기계 산업별)」를 발간・배포하여 누구나 쉽게 원산지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2015년 1월부터는 원산지관리시스템(FTA-PASS)³⁾ 내에 '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증빙 서비스'를 개발해, 농어민들도 손쉽게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및 유통을 할 수 있게 하여,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물론 상대국의 사후검증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. 이외에도 FTA 활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 · 중 FTA 전용상담 창구 운영, 임가공무역 · 농수산물 가공무역 등 중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유턴기업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책 마련 등 이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.

FTA 활용이 더 이상 '선택'이 아닌 '생존'이 되는 냉엄한 국제무역환경에서, 관세청은 내년도 기업 지원정책의 화두를 승풍파랑(乘風破浪, 바람을 타고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간다)으로 삼아 중소기업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

- 1)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'이력추적관리등록증', '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', '친환경농산물 인증서', '지리적표시등록증' 약 3만여 개(약 32만 농가) 인증서
- 2) FTA원산지 판정을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내역, 투입수량, HS코드, 원산지정보, 각 원재료별 가격 등을 기재한 원재료 상세내역
- 3) FTA-PASS: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무료로 개발·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①각 FTA 원산지 결정기준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자동판정 ②원산지확인서·원산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발급 ③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전자통관홈페이지에 자동 전송 ④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 유통·보관 등에 활용